

한화석유화학 어음 신용등급 “A3+”

한국기업평가는 한화석유화학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3+로 평가하고, 기발행 제 207, 208, 210, 211, 212-1, 212-2, 214, 216회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+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.

한기평은 한화석유화학의 안정적인 사업기반, 대폭적인 재무구조 개선, 계열위험 완화 등 긍정적인 요인과 중국·중동의 대규모 설비증설에 따른 일부제품 시황 악화 가능성, 그룹 모회사 역할에 따른 계열사 지원부담 등 부정적인 요인을 함께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.

아울러 등급전망은 안정적(Stable)이라고 덧붙였다.

<화학저널 2006/07/20>